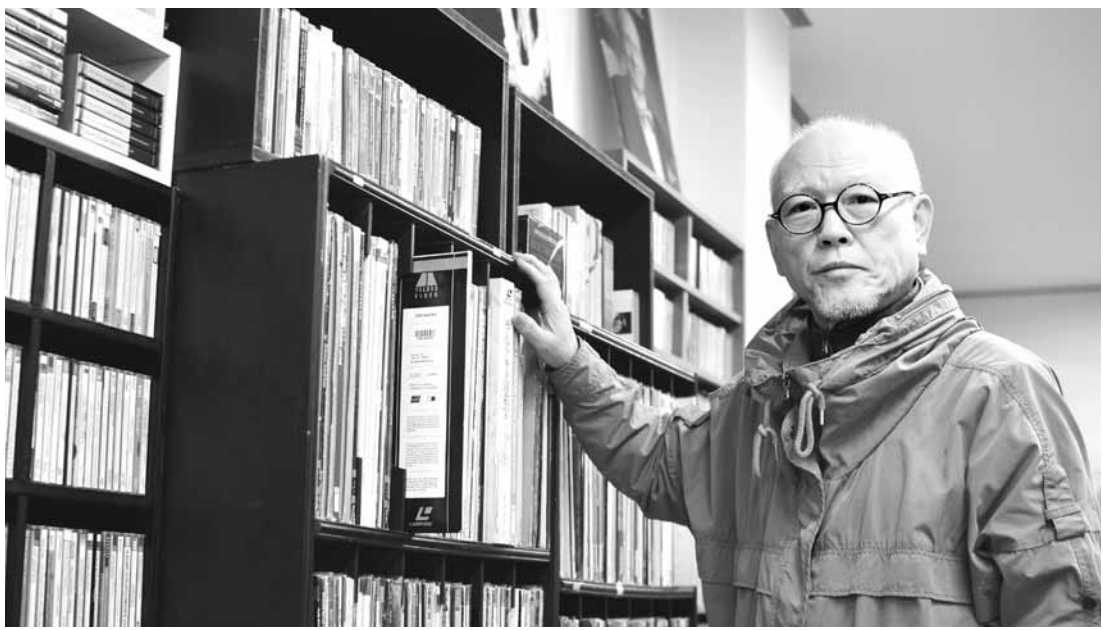


다문화·새터민가정 어린이들에 재능기부 이건설 목포대 음대 명예교수



이건설 목포대 음대 명예교수가 6일 목포시 산정동 종합사회복지관 내 새삼스토리에서 본인이 기증한 클래식 앨범을 설명하고 있다.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한 작지만 소중한 기부 계속 할겁니다”

기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을 이용한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받는 사람은 자신이 꼭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재직하다 지난해 8월 은퇴한 그는 “아이들은 피아노가 즐겁고,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왜 중도에 그만 다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아이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도록 돕고 싶다”라고 재능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가톨릭대학교는 16일부터

와 LP 등 1만 장이 넘는 앨범, 스피커와 축음기 등 음향기기, 음악관련 서적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동·서양화 등 4억원 상당을 광주가톨릭대학, 목포가톨릭대학,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대중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모두 기부했다. 자녀가 모두 음악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회에 양보한 것이다.

“자료를 수집할 때부터 내 것이 라기보다는 잠시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회를 위해 환원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이 교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공익시설에 기부해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게 더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재능기부는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 교수는 음악을 가르치는 대학 제자들에게 재능기부를 권유했고 현재 10여명이 무료 피아노 레슨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장기이식센터에 장기 기증을 약속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부한 이 교수. 그는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개성,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 동안 사회를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목포=양세원기자 hot@

4억원 상당 음향기기·DVD·서적 등 기부 16일부터 카톨릭대서 '고전음악 감상' 진행

다문화가정과 새터민가정 어린이들에게 20년 넘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쳐온 이건설(67) 목포대학교 음대 명예교수는 '재능기부 전도사'로 불린다. 이 교수는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피아노를 익히고 싶어도 생계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50~60대 주부 등 20여 명에게 무료 레슨을 해왔다. 대학 강단 밖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만 수백명이 넘는다. 그는 “단순히 피아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올바른 시각을 만들어 주고 싶다”며 음악의 역할을 강조했다. 목포대학교에서 33년간 교수로

'이건설 교수와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고전 및 종교음악 감상'을 진행한다. 클래식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마련된 강좌로 대학내 평생교육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15주간 진행한다. 이 교수는 비발디의 사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등 대표적인 고전음악에 쉬운 해설을 곁들여 일반인들이 클래식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음악감상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음악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음악과 사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이 교수. 그는 평생 모은 DVD



남구 신청사 '백운광장 시대' 활짝

광주시 남구청이 8일 오후 2시 주월동 신청사의 개청식을 갖고 '백운광장 시대'를 시작했다. 개청식은 강은태 광주시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조호권 광주

시의회 의장 등 내외 귀빈과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신명나는 풍물패의 지신탈기 길놀이 공연과 함께 신청사

앞에서 테이프 커팅·기념식수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신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남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의 출발에 맞춰 백운광장 상권 개발 등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 6층, 지상 9층 규모의 남구 신청사는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이, 지하 1층~지상 4층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음식점, 은행, 약국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원실은 1층, 남구보건소는 5층, 남구의회는 9층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부서는 6~9층에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강진군 5200만원 횡령 공무원 적발

안행부 지자체 특별감사... 7건 검찰 고발·5건 중징계 요구

지난해 여수시에서 8급 공무원이 76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터진 데 이어 강진군의 한 공무원이 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각종 수익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안행행정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4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회계운영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금 횡령과 유용 13건, 6억4700만원 상당을 적발해 7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안행부는 아울러 회계운영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451건 적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작년 여수와 완도 등에서 발생한 회계업무 담당자의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재발을 막기 위

해 시·도가 시·군·구를 감사한 데 이어 안행부가 시·도를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강진군의 공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박물관 체험료 등 각종 수익금 5200만원을 담당 공무원이 회계직인을 도용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경기도 안산시청의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계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으로 허위 회계서류를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언니나 시누이 남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억7300만원을 횡령해 검찰에 고발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공기관 비정규직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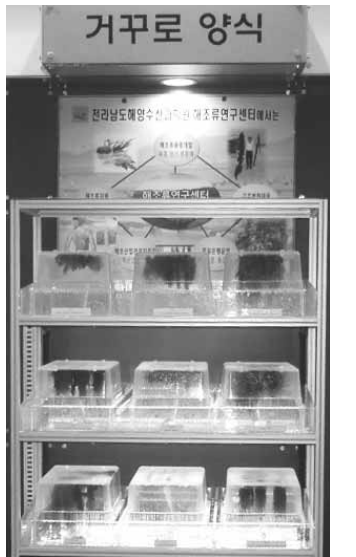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려내 2015년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은 24만 9000여명이다. 지난해에는 2만2000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4만1000명 이상이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24만9614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

혔다. 이는 전년보다 8621명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2015년까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에는 2011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도 포함될 예정이다. /연필뉴스

해조류, 집에서 길러드세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거꾸로 양식 시스템' 개발

멸종 위기에 처한 뜬바지, 불등가사리, 풀가사리 등 해조류를 집에서 키우듯 물을 뿌려 재배하는 시대가 열렸다. 해조류 물양식시스템 개발로 바다 양식에 필요한 수심어린대 시설비를 아낄 수 있고, 해양 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8일 '뜸부기 등 소형 해조류를 통해 담야 거꾸로 뒤집어 물을 뿌려 키우는 '거꾸로 양식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국내 특허를 뒀고, 최근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거꾸로 양식시스템(사진)은 통해 해조류를 부착시켜 물에 담그지 않고, 뒤집어 물을 분무하는 방식이다. 해조류 뿌리는 육상식물과 달리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부착해 있을 지탱하는 기능만 있는 점에 착안한 양식법이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잎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물만 뿌려줘도 충분히 해조류가 자랄 수 있어 해양 오염을 줄일 수도 있다. 또 영양분이 함유된 물이 용기 아래에서 자동 분사되기 때문에 해상 양식장과 동일한 성장 속도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시설비가 기존 해상 양식장이나 육상 수조에 비해 최

고 100배나 저렴하고, 용기를 층층이 쌓으면 좁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수산과학원은 양식 어가와 일반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거꾸로 양식 시스템 용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뜸부기는 kg당 8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부가가치 해조류다"면서 "육상에서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해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런던악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업기념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관 (2층) 버블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원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구.한미소점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 골목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활(땅두름)묘목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54, 39, 87, 160, 419

계림거리 버스정류소

산정입구 계림초등학교

서방사거리 06,19,83,180,184

4,19정류소 55,98,151,518

호남직업전문학교

홀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